

모두 발언

2023. 11. 6. (월) 10:00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2F)

상기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은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 융 감 독 원

원 장 이 복 현

I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한국공인회계사회 김영식 회장님,
한국회계기준원 이한상 원장님,
그리고 회계법인 대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회계업계의 현안을 공유하고,
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게 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II 회계감독 방향 및 당부사항

2018년 11월 新외감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계산업이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함으로써
내실 있는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오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인 지정 비율 증가와 함께
감사시장의 경쟁은 저하되었지만
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등 감사품질과 관련한
시장의 요구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지정감사를 받는 회사도
재무제표 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인 만큼,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더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공인회계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회계
법인 차원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적발된 공인회계사 가족 허위채용,
주가조작 연루, 감사정보 유출 등 부정행위는
회계업계에 대한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회계법인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소속 구성원의 윤리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융감독원도 감사환경 변화에 회계법인이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회계와 IT 기술의 융합 등으로
국내외 감사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국내 회계법인의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회계법인이
디지털 감사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회계법인의 높아진 사회적 책임에 걸맞은 합리적인
감사업무 관행을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산업의 외형이 성장하는 만큼
회계법인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더불어
책임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감사업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이 4대 회계법인과 함께
발표한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이
회계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Ⅲ 맺음말

최근 경기 부진으로 한계기업이 늘어나면서
부실을 감추기 위한 분식회계 유인이 커지고,
횡령사건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내부통제를 주의 깊게 살피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융감독원도
감사인 지정비율 적정화 등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新외감법 안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간담회에서 건의해주신 사항들 중
상당 부분이 제도개선 등에 반영되었는데,

오늘 논의된 건설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도
실무부서에서 적극 검토하여
향후 회계감독 업무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